

보도시점 : 2024. 2. 25.(일) 11:00 이후(2. 26(월) 조간) / 배포 : 2024. 2. 23.(금)

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 하늘길 열린다

- 22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한-몽골 간 항공회담... 여객 운수권 증대 합의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2월 22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-몽골 간 항공회담*에서 양국 지방공항 운수권을 운항기종에 따른 제한없이 노선과 횟수를 증대하고,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.

* <수석대표> 한국심지영 국제항공과장, 몽골몽크투야(Munkhtuya Chimeddorj) 민간항공청장

-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은 국내 지방공항에서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부터 운항기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.
- 이번 회담을 통해 부산-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기종 제한없이 기존 주6회에서 주9회로 늘어난다. 대구·무안·청주 등 기존 3개 노선은 5개 노선*으로 확대하고, 운항횟수도 기존 주9회에서 주15회로 증대하였다.

* (제주·양양) 항공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, 운수권 심의를 통해 운항할 수 있게 된다.

<한-몽골 간 항공회담 주요 논의 결과>

기간	노선	기존	변경
지방공항 (연중)	부산-울란바토르	1회당 200석 이하 / 주 6회	주9회(+주3회) 기종 제한 없음
	대구-울란바토르, 청주-울란바토르, 무안-울란바토르	3개 지점, 1회당 200석 이하 / 주 3회	5개 지점, 주15회(+주6회) 기종 제한 없음
비수기 (매년 10월~익년 5월)	인천- 울란바토르	주 3,350석 / 주 12회	기존과 동일
성수기 (매년 6월~9월)		주 6,000석 / 주 22회	기존과 동일

-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“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이 지방공항 운항 시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,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,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”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	심지영	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희	(044-201-4208)
		담당자	주무관	김대영	(044-201-4212)



□ 체결

- 체결 : '91.10.23(가서명: '91.9.6, 서명: '91.10.23, 발효: '91.11.28)

□ 지정항공사 : 복수제(다수)

- 우리측 :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, 에어부산, 제주항공, 티웨이항공, 에어인천(화물), 진에어
- 몽골측 : 몽골항공, 이즈니스항공, 에어로몽골리아

□ 노선구조 및 공급력 등

- 노선구조

구 분	출발지점	중간지점	목적지점	이원지점
우리측	한국 내 제지점	제지점	몽골 내 제지점	제지점
몽골측	몽골 내 제지점	제지점	한국 내 제지점	제지점

- 공급력

- 3/4자유 여객 인천-울란바토르 3,350석(우리측:12회, 몽측:15회), 부산-울란바토르 주6회(1회당 200석 이하), 대구·청주·무안-울란바토르 주3회(1회당 200석 이하)
- 성수기(6~9월) 주6,000석(우리측 22회 / 몽골측 주27회)으로 2배 증대('23.2.18)
- 3/4자유 화물 주5회